

# 회의록

회의명	고려대학교 대학평의회 제33차 회의		
일시	2024.1.30(화) 15:00~17:00	장소	본관 3층 제2회의실
안건	<p>□ 자문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30연구기금 및 G30발전기금 용도 변경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김상용 경영대학장</li> </ul> </li> <li>○ 글로벌엔터테인먼트 학부신설 및 미디어대학 승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정운혁 미디어학부 부학부장</li> </ul> </li> <li>○ 2023학년도 교비회계 추경예산(안) 및 2024학년도 교비회계 본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표: 유용근 기획예산처장</li> </ul> </li> </ul>		
논의사항 (요지)	<p>□ 보고사항 - 제32차 회의록 요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사가 제32차 회의록을 요약하여 설명함.</li> <li>- 간사가 제32차 회의에서 조운정 평의원이 요청한 대학평의회 구성 단위 변경 절차 및 관련 규정에 대하여 보고함.</li> <li>- 의장이 구성 단위 변경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에서 총장님께 보고하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함.</li> </ul> <p>□ 자문사항1 - G30연구기금 및 G30발전기금 용도 변경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상용 경영대학장이 G30연구기금 및 G30발전기금 용도 변경 건에 대하여 설명함.</li> <li>- 홍석희 평의원이 해당 기금은 추가적으로 계속 적립되는지, 소진되면 없어지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li> <li>- 김상용 경영대학장이 해당 기금은 소진되면 없어지는 것이고 별도의 신진교수 채용 기금 명목으로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5년간 묻혀 있었던 잔고 30억원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교수 채용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소진되면 추가 모집한 다른 기금에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답변함.</li> <li>- 조운정 평의원이 해당 건이 경영대 내부 컨센서스를 이룬 결론인지와 신진교수를 채용하고 유지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 것 같은데 재원은 어디서 온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함.</li> <li>- 김상용 경영대학장이 해당 건은 내부 컨센서스를 이룬 결론이며 30억 모두 기부자가 KUBS 월드와이드 비즈니스 랭킹을 위해 사용하라고 재단에 기부한 재단전입금으로써 더 이상 해당 목적에 사용할 이유가 없기에 기부자의 승인 하에 신진 교원 채용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본교 기금교수</li> </ul>		

# 회의록

회의명	고려대학교 대학평의회 제33차 회의		
일시	2024.1.30(화) 15:00~17:00	장소	본관 3층 제2회의실
	<p>제도에 따라 6명의 교원 채용을 위해 60억원을 목표로 자체 발전기금과 신규 모금 활동을 통해 충원할 예정이라고 답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윤정 평의원이 해당 교원의 신분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록이나 사학연금 가입 등의 처우에 관련하여 질의함.</li> <li>- 김상용 경영대학장이 재원만 처음 10년간 자체 대학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본교 전임교수와 처우는 동일하다고 답변함.</li> <li>- 김상덕 평의원이 총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120주년 기념 사업 중 본교 랭킹 상승을 위한 120명 기금교수 채용 계획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질의함.</li> <li>- 김상용 경영대학장이 맥락은 같지만 총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은 자연계와 이공계에 집중이 돼 있고 인문사회계는 해당되지 않는데 단과대학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교수를 늘리겠다는 단과대학은 1인당 1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면 가능한 제도가 기금교수 제도인데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답변함.</li> <li>- 의장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전체 평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자문을 완료함.</li> </ul> <p>□ 자문사항2 - 글로벌엔터테인먼트 학부신설 및 미디어대학 승격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윤혁 미디어학부 부학부장이 글로벌엔터테인먼트 학부 신설 및 미디어대학 승격 건에 대하여 설명함.</li> <li>- 홍석희 평의원이 학부 정원을 조정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li> <li>- 정윤혁 미디어학부 부학부장이 최근 엔터테인먼트가 뜨고 있고 외국인 학생은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으며 외국인학생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외국인 전용 엔터테인먼트학부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답변함.</li> <li>- 김효민 평의원이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에서 사용하는 기본 언어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와 현재 미디어학부에 오는 유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어디인지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질의함.</li> <li>- 정윤혁 미디어학부 부학부장이 영어전용학부는 아니어서 영어를 주 언어로 하되 실습같은 경우는 영어보다 한국어가 어울리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한국어 강의를 개설할 예정이고, 학교 전체와 마찬가지로 중국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상태인데 향후 다양한 외국인 학생을 선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답변함.</li> <li>- 의장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전체 평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자문을 완료함.</li> </ul>		

# 회의록

회의명	고려대학교 대학평의회회 제33차 회의		
일시	2024.1.30(화) 15:00~17:00	장소	본관 3층 제2회의실
	<p>□ <b>지문사항3 - 2023학년도 교비회계 추경예산(안) 및 2024학년도 교비회계 본예산(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용근 기획예산처장이 2023학년도 교비회계 추경예산(안) 및 2024학년도 교비회계 본예산(안) 중 수입에 대하여 설명함.</li> <li>- 조운정 평의원이 주변에서 정릉 캠퍼스의 모든 건축 비용을 의료원에서 부담하면서 건물 사용료도 고려대학교에 내고 있어서 해당 캠퍼스의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을 쏟아붓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지와 기본금 변동 내역에 대하여 질의함.</li> <li>- 김현수 의과대학 부학장이 정몽구 재단에서 정릉 캠퍼스 개발비용으로 100억을 기부했고 엘엔피코스메틱에서 20억원을 기부한 상황에서 법인으로 들어온 기부금을 의료원으로 주는 것을 기본금이라고 하는데 2023학년에 원래 계획되었던 정몽구관 건축이 딜레이 되면서 정몽구재단 재원의 기본금 60억원이 보류되었고 다른 건물 리모델링 비용으로 엘엔피코스메틱 재원의 기본금 20억이 들어온 상황이라고 답변함.</li> <li>- 조운정 평의원이 정몽구 재단 기본금 100억원중 60억원이 2024년도에 들어올 예정이 맞는지 여부와 정몽구관 건축비 500억원 중 잔금은 누가 총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li> <li>- 김현수 의과대학 부학장이 2024년도에 60억원이 들어올 예정이며 잔금은 의료원에서 총당할 예정이고 의료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함.</li> <li>- 유용근 기획예산처장이 공간관리 규정을 보면 특정 단과대학이 모금을 통해 특정 공간을 만들면 일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의료원 수입을 특정목적기금으로 총당을 했다가 일부를 투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경영대에서도 600억 이상 들어서 경영대를 지었고 수업을 하면서 현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함.</li> <li>- 조운정 평의원이 진리관 내 역사관을 사용료 및 해당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의료원에서 부담하면서 그 건물을 다른 대학에서 사용하게 한다는 소문에 대해 확인해 달라고 질의함.</li> <li>- 유용근 기획예산처장이 A단과대학이 돈을 들어서 만든 공간에 B단과대학이 들어가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의대가 리모델링에 비용을 쓴다는 것은 의대가 먼저 활용한다는 전제하에서 투자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함.</li> <li>- 조운정 의원이 투자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10년 뒤에 사용한다면 투자보다는</li> </ul>		

# 회의록

회의명	고려대학교 대학평의회 제33차 회의		
일시	2024.1.30(화) 15:00~17:00	장소	본관 3층 제2회의실
	<p>비용이라고 보는 관점이 우세하다고 답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석희 평의원이 산학협력단 적립금의 용도에 대하여 질의함.</li> <li>- 유용근 기획예산처장이 R&amp;D 과제를 수주하면 일정 비율로 간접비를 공제하여 그 재원을 통해 일단 산단 자체 운영비로 활용하고 일부 교비로 전출하는 이유는 간접비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고 2024학년도의 경우 산단 직원 및 미화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답변함.</li> <li>- 의장이 산단이 조직이 너무 커져서 일하는 것보다 소비성이 너무 심한 상태에서 학교에 큰 보탬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교수님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의견을 제시함.</li> <li>- 조운정 평의원이 2024년 자금예산총괄표상의 교내 전입금과 관련하여 질의함.</li> <li>- 유용근 기획예산처장이 본교 서울캠퍼스와 의과대학은 각각 독립채산제이고 상호 간 정산을 할 수 있으며 과거에 계약을 통해 의대 학생들이 교양수업 같은 강의를 본교에 와서 듣는 부분에 대하여 의대에서 학교로 전출해준 것이라고 보면 되고 의대가 서울에 11억을 주기 때문에 서울은 수입으로 잡고 서울은 8.8억원을 지출했는데 세종이 2억, 의대가 6억 8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세 캠퍼스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 답변함.</li> <li>- 김진배 평의원이 독립채산과 관련하여 의료원 및 의과대학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질의함.</li> <li>- 유용근 기획예산처장이 서울 캠퍼스와 의과대학은 하나의 교비회계이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료원은 병원회계로 완전히 별도의 회계단위로 구분되는데 현재 의과대학의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함.</li> <li>- 김현수 의과대학 부학장이 의과대학 1년 운영비가 1800억 정도 되는데 의대 자체 수입이 600억원 정도이고 의료원에서 1200억원을 전출해줘서 의과대학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변함.</li> <li>- 유용근 기획예산처장이 2023학년도 교비회계 추경예산(안) 및 2024학년도 교비회계 본예산(안) 중 지출에 대하여 설명함.</li> <li>- 조운정 평의원이 미사용 전기 이월금에 대하여 질의함.</li> <li>- 유용근 기획예산처장이 미사용 전기 이월금이 58억원 정도인데 2023학년도에 집행을 다하지 못하고 이월한 금액인데 연구비 총액이 약 54억원, 장학금 총액이 약 3억원 정도라고 답변함.</li> </ul>		

# 회의록

회의명	고려대학교 대학평의회 제33차 회의		
일시	2024.1.30(화) 15:00~17:00	장소	본관 3층 제2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현수 의과대학 부학장이 미사용 전기 이월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출 원인이 발생하는 시점과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만약 2월 28일에 연구비를 청구하면 실제 집행은 3월에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58억원을 미사용 전기 이월금으로 적립을 해서 내려온다고 답변함.</li> <li>- 조운정 평의원이 복리후생비 용도에 대해서 질의함.</li> <li>- 김현수 의과대학 부학장이 복리후생비는 자녀 학비, 장기근속 퇴직자 기념품 등에 사용된다고 답변함.</li> <li>- 유용근 기획예산처장이 서울캠퍼스에 근무하는 교수의 경우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비용을 지급하는 단체보험을 들고 있다고 설명함.</li> <li>- 김현수 의과대학 부학장이 의대는 단체 보험을 가입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함.</li> <li>- 조운정 평의원이 의대에서도 동일한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김현수 부학장에게 검토를 요청함.</li> <li>- 조운정 평의원이 최근 가장 많이 듣는 컴플레인이 의과대학 교수의 급여를 포함한 처우가 다른 경쟁대학(연세대 의대)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다는 것인데 의과대학 부학장에게 참고해 달라고 요청함.</li> <li>- 조운정 평의원이 타 대학과 관련해서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어느 정도 인지와 학생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에 대하여 질의함.</li> <li>- 유용근 기획예산처장이 중앙일보 랭킹에 따르면 등록금 자체가 낮은 국립대보다는 낮은데 사립대 중 연대가 16등이고 본교가 17등이라서 사립대 중에서는 높은 편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하고 학부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받는데 소득수준 분위에 따라 상위 70~80% 정도까지 받고 있고 일반대학원의 장학금의 경우 산단 재원의 BK장학금을 포함해서 등록금 대비 75%정도 수준이라고 답변함.</li> <li>- 조운정 평의원이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상향 계획과 국가 차원의 연구비 쏠림 현상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방안을 질의함.</li> <li>- 유용근 기획예산처장이 등심위 요구 조건 중 하나가 인문사회계 소외학과에 대한 장학금 개선 방안인데, 쉽지 않은 문제인데 학생 수, 교원 수 등을 고려한 일종의 공식을 바꾸어야 하는데 자연계 교수님들이 반발할 수 있어서 본부 차원에서 차근 차근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함.</li> <li>- 의장이 이공계 학생들과 인문사회계 학생들의 등록금 차이가 있고 기재자 값이 많아서 이공계가 조금 더 등록금을 내니까 학생회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li> </ul>		

# 회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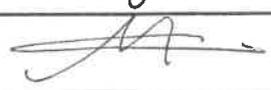
회의명	고려대학교 대학평의회 제33차 회의		
일시	2024.1.30(화) 15:00~17:00	장소	본관 3층 제2회의실
	<p>는데 연구를 통해 조금 더 부족한 대로 배분하는 슬기로운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운정 평의원이 2023학년도 지출에서 의과대학장의 업무추진비가 0으로 표시되어있는 문제에 대하여 질의함.</li> <li>- 김현수 의과대학 부학장이 보직자 업무추진비는 교비회계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의료원 회계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무부총장, 의료원 처장, 기타 의료원 보직자들은 의료원 회계에서 충분히 지급되고 있다고 답변함.</li> <li>- 조운정 평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이 경쟁력 저하 사유로 인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함.</li> <li>- 유용근 기획예산처장이 현재 연대보다 등록금이 높은 상황이고 2~3%만 올려도 천만원을 넘어가는 상황이라 법학전문대학원 자체 합의에 따른 요청으로 제외하였다고 답변함.</li> <li>- 조운정 평의원이 사회 통념상 법학전문대학원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많다고 하니 등록금을 많이 올리고 빈곤한 데서 상상력을 갖고 대한민국을 키울 인재들이 들어오는 분야는 적게 올리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li> <li>- 유용근 기획예산처장이 대학원 전체에 공문을 보내서 학장님들께 확인한 사항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가지고 학생들과 협의해서 확정된 사항이라고 답변함.</li> <li>- 조운정 평의원이 교원 보수가 작년 대비 2.89%, 직원 보수가 3.5% 상승한 요인에 대하여 질의함.</li> <li>- 유용근 기획예산처장이 현재 노사협회가 진행중에 있으며 교원 지급 임금 인상이 확정된 부분, 신규 교원 채용 순증 효과, 호봉 시너지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답변함.</li> <li>- 조운정 평의원이 미국의 사례처럼 대학의 발전이 글로벌 헤게모니를 잡는데 절대적인 상황에서 재단 및 대학 본부에서 의과대학의 현실을 직시하고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함.</li> <li>- 의장이 재단 전입금 규모 확대를 위해 중앙광장 임대료가 재단으로 입금 후에 본부 전입금으로 다시 들어오는 문제에 대하여 질의함.</li> <li>- 유용근 기획예산처장이 감사 후에 변경되었다고 답변함.</li> </ul>		

# 회의록

회의명	고려대학교 대학평의회 제33차 회의					
일시	2024.1.30(화) 15:00~17:00	장소	본관 3층 제2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석희 평의원이 올해 예산의 경우 전문대학원이 5%, 일반대학원이 4% 인상 되었는데 1% 차이가 적게 보이지만 누적이 되면 큰 차이가 될 수 있으므로 차기에는 동일한 비율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li> <li>- 유용근 기획예산처장이 특수(전문)대학원의 직장인 비율, 일반대학원의 소외 학문 보호 등을 고려했고, 그리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전문대학원 멤버 부재 문제가 있어서 예산팀 검토를 통해 보완해 갈 예정이라고 답변함.</li> <li>- 조운정 평의원이 대학총장협의회 차원에서 반값 등록금 제도 도입 후 국력 상승 지표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대정부 질의를 통해 반값 등록금 제도가 대한민국 국력 상승의 동력 회복을 위한 적절한 결정이었던지를 질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li> <li>- 의장이 해당 건에 대하여 전체 평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자문을 완료함.</li> </ul>					
기타사항	<p><input type="checkbox"/> 부의장 선출은 차기 회의에서 기획예산처장의 진행에 따라 의장과 함께 선출하기로 함.</p> <p><input type="checkbox"/> 조운정 평의원이 회의 후 이메일로 별도로 질의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에서 차후에 답변하기로 하고 요지는 아래와 같음. (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급여인상분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방법 및 4대보험 부담금 납부 시기</li> <li>- 교원, 직원 급여 인상을</li> <li>- 교원 임금 결정 방법</li> <li>- 병원 회계 관련 안건 상정</li> <li>- 고려대에 기부된 기부금 및 이자 처리방식 등</li> </ul>					
참석현황	참석대상자	14 명	참석내역	손승현, 김진배, 김호민, 홍석희, 조운정, 김상덕, 임금님, 성만영, 조은영, 임 현	불참내역	이연숙, 곽영길, 김문기, 윤희상
	참석자	10 명				
	불참자	4 명				
학교측 참석자	유용근 기획예산처장, 김현수 의과대학 부학장, 유신열 기획팀장					
간사 (기획팀 차장)	유종복		의장	성만영		

평의원
김상덕

평의원
조운영

회의명	고려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제33차 회의		
일시	2024. 1. 30(화) 15:00	장소	본관 3층 제2회의실
평의원	성명	서명	
의장	성만영		
교수	손승현		
교수	김진배		
교수	홍석희		
교수	김호민		
교수	조윤정		
직원	김상덕	김상덕	
직원	임금님	임금님	
학생	조은영	조은영	
학생	임현		
조교	윤희상		
교우	김문기		
교우	곽영길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이연숙		